

제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주 화재 대피 훈련 때 비상구를 찾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런데 치솟는 불길과 짙은 연기 등으로 인해 비상구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의문이 생겨 조사한 ‘피난 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피난 기구는 피난 시설 중 하나로 화재 시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먼저 설명할 피난 기구는 ‘완강기’입니다. ([자료 1]을 제시하며) 이것은 완강기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완강기는 화재 시 높은 층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면과 같이 연결 고리를 지지대에 걸어 고정하고 로프를 밖으로 던집니다. 그다음 여기 보이는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단단히 조인 후 건물 밖으로 몸을 내밀어 내려갑니다. 연결 고리 바로 아래에 속도 조절기가 보이죠? 이것이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게 해 주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 탈출한 후 올라온 로프를 다시 던지면 가슴벨트가 올라와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나 사용 방법은 완강기와 동일하지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간이 완강기’도 있습니다. 보관함에 완강기의 종류가 적혀 있으니 잘 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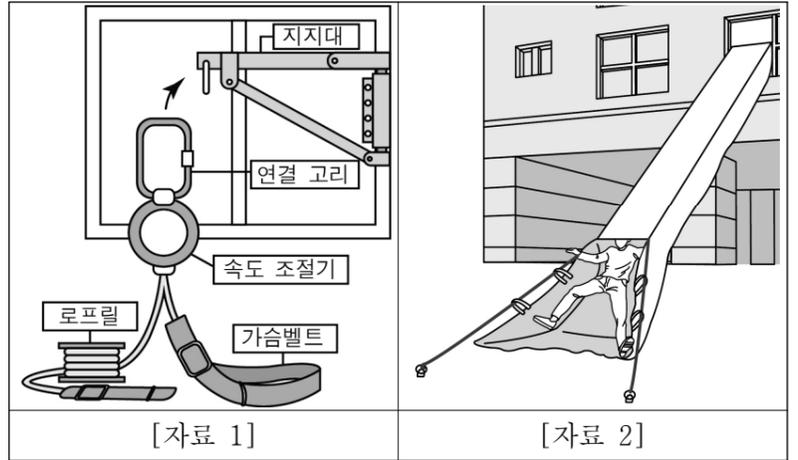
다음 피난 기구는 ‘구조대’입니다. 구조대는 특수한 섬유로 만든 긴 터널로, 화재 발생 시 지상까지 이어져 피난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자료 2]를 제시하며)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경사식 구조대로, 평소에는 접어서 함에 보관하다가 설치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구조대는 다른 피난 기구와 달리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이 설치를 도와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보관함을 열어 구조대를 밖으로 던지고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조대를 땅에 고정시켜 화면과 같이 터널 모양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다음 양팔과 다리로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탈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피난 기구들은 건물의 목적이나 높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중 건물 구조에 적합한 것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피난 기구 위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 방법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1. 위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말하기 계획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대상과 관련된 법률을 인용하여 청중에게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겠어.
- ②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신뢰를 얻어야겠어.
- ③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발표 제재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밝혀야겠어.
- ④ 질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이 발표의 중심 내용에 대해 이해한 정도를 점검해야겠어.
- ⑤ 도입부에서 발표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겠어.

2. 다음은 위 발표에서 제시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완강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자료 1]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내려올 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주는 장치를 설명하고 있다.
- ③ [자료 1]을 활용하여 간이 완강기와 완강기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자료 2]를 활용하여 구조대를 이용해 건물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자료 2]를 활용하여 건물 외부에 구조대를 설치했을 때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다.

3.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 1: 유치원생들이 천으로 된 터널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게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발표를 듣고 구조대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의미가 있었어. 그런데 구조대 종류도 다양할 것 같으니 찾아봐야겠어.

학생 2: 간이 완강기에도 속도 조절기가 있어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겠네. 그런데 몸을 밖으로 내밀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너무 간략해서 아쉬웠어.

학생 3: 평소 피난 기구를 볼 때 불이 나면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만 했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사용법을 알아두어야겠어. 그리고 피난 기구 외에 다른 피난 시설들을 더 알아보고 자주 가는 건물에서 그 위치를 확인해 두어야겠어.

- ① 학생 1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설명한 내용 중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자가 당부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천할 사항을 생각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듣고 있다.

[4 ~ 7] (가)는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연설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내가 이번 학생회 선거에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는데, 공약을 세우는 데 도움이 필요해 모여달라고 했어. 혹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느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있니?

학생 2: 평소에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는 자판기 설치야.

학생 1: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학생 2: 우리 학교에는 매점이 있지만, 매점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이용을 할 수 없어.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매점 운영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

학생 3: 자판기 설치를 공약으로 세우려면 선생님과 사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아? 자판기 구입이나 설치 장소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 [A]

학생 1: 실현할 수 있다면 좋은 공약이 될 것 같아. 내가 알기에도 자판기 설치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거든. 이걸 설치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해 볼게.

학생 2: 학생들이 특별실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 다른 반 친구들과 탐구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여러 선생님께 여쭙보러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불편했어.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여러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어. [B]

학생 3: 맞아. 특히 행사 직전에는 특별실 담당 선생님께 가서 여쭙봐도 이미 다른 학생들이 특별실을 빌린 경우가 많았어. 온라인을 활용해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학생 1: 괜찮은 생각이야. 선생님들과 상의해 볼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나도 의견이 있어. 지금 우리 학교의 온라인 소통망이 학교 누리집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면 좋지 않을까?

학생 3: 맞아. 어떤 온라인 소통망은 가입을 해야만 보이는 것도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소통망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학생 1: 학교 누리집에 온라인 학생회를 만들면 어떨까 해. 운영 중인 여러 소통망을 일원화하는 거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특별실 사용 예약도 온라인 학생회에서 받으려고 해. 그러면 학생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학생 1: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것도 공약에 넣어 볼게.

학생 3: 그리고 나는 점심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 차를 기다려 급식을 먹은 뒤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학생 2: 나도 공감해. 하지만 점심 시간을 늘리면 다른 시간이 줄어들거나 하교 시간이 더 늦춰져야 해. 일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학생 3: 교지편집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63%의 학생들이 점심 시간을 늘리면 좋겠다고 했어. 많은 학생들이 원하니 우선 공약으로 제시해보는 게 어때?

학생 1: 좋은 의견 고마워. 하지만 일과 조정은 쉽지 않으니 내가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제시하는 걸로 할게.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실현 가능 여부를 선생님들께 여쭙본 뒤 연설문을 써 볼게.

학생 2, 3: 그래.

(나)

㉠ 안녕하세요. 학생회 부회장 후보, 기호 '가' ○○○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학생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소통망을 일원화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회에서 운영 중인 여러 소통망을 찾아보아야 했던 것을 온라인 학생회로 일원화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학생회 활동과 학교 생활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특별실 사용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둠 및 동아리 활동 장소를 찾기 위해 여러 선생님을 찾아다녀야 했던 것을 사용 가능한 특별실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사용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설 방법과 관리 문제 등에 큰 어려움이 없음을 이미 선생님께 확인받았습니다.

셋째, 간식 자판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매점 운영 시간에만 간식을 구매할 수 있어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학교의 50% 이상은 이미 간식 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회장이 되면 간식 자판기를 설치하여 많은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더 나은 △△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한 표를 저에게 주신다면 먼저 다가가고 △△고 학생을 위해 발로 뛰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기호 '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가)의 '학생 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의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대화의 목적을 제시하며 상대의 발언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③ 상대의 발언을 재진술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시하며 상대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 ⑤ 상대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제안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들어 제안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제안이 실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2'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제안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상대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 [B]에서 '학생 2'는 모두 타인의 의견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6. (가)를 바탕으로 세운 아래의 작문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첫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기대효과를 제시해야겠어. ①
- 둘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에서 언급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②
- 둘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 후 선생님과 논의한 내용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공약임을 제시해야겠어. ③
- 셋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에서 제시된 자판기와 관련하여 그 종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겠어. ④
- 셋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에서 언급된 친구들의 관심에 관한 설문 결과를 활용해 친구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약임을 제시해야겠어. ⑤

7. 다음 조언에 따라 ㉠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제시할 공약의 특징을 활용하여 어떤 특징을 가진 후보인지를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유권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또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내용을 언급한다면 신뢰를 줄 수 있을 거야.

- ① 경청하는 후보, 실천하는 후보. 투명한 학생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 ② 행복한 학교 생활을 돕는 후보. 우리가 겪은 불편함은 제 손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③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새로움을 보여줄 후보. 열린 소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④ 불편을 개선하는 후보, 학교를 바꾸는 후보.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말씀드립니다.
- ⑤ 학생을 위한 학생회, 학생과 함께하는 학생회. 항상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겠습니다.

[8 ~ 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학생들에게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를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학생의 초고]

□□고 학생 여러분, 학생회장 ○○○입니다. 요즘 급식실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급식실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학생자치회에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자치회에서는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는지 일주일 동안 관찰해 본 결과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배식을 받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배식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배식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잔반을 국그릇에 모아서 깔끔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반을 버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친구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넷째, 잔반을 버린 후 식판을 차곡차곡 쌓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어지럽게 쌓인 식판들이 쓰러져 바닥이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생자치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 판단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것이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를 진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급식 도우미의 날이란 반마다 돌아가면서 줄서기 지도, 배식, 잔반 처리 돕기, 식판 정리하기 등의 활동을 해 보는 날을 말합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급식 도우미 역할을 직접 해 본다면, 급식실 이용 규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는 학생자치회에서 의결하여 2학기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생자치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 밑글에서 활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사의 세부 활동을 나열한다.
- ② 관용 표현으로 행사의 의도를 강조한다.
- ③ 관찰한 결과를 중요도 순으로 제시한다.
- ④ 문제 상황을 인지하게 된 계기를 제시한다.
- ⑤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9.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들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급식실 이용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내 용	비율(%)
새치기하는 친구들	42.5
잔반을 버릴 때 시간이 오래 걸림	15.5
장난치는 친구들 때문에 배식 시간이 지연됨	14.5
식판을 아무렇게나 쌓고 가는 친구들	13
기타	14.5

ㄴ. ○○ 선생님 인터뷰
“식판을 쌓을 때 모양대로 겹치지 않으니 식판이 쓰러져 큰 소리가 나거나 식판이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도 매우 놀라고, 세척도 불편해집니다. 게다가 달마다 구부러진 식판을 파악해서 새것을 사야 합니다. 식판 수거와 확인, 구입 같은 일에 힘과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면 급식 준비에 쏟을 힘과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ㄷ. 다른 지역의 학교 신문 기사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급식 시간 모습이 다르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배식과 잔반 처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식과 잔반 처리 봉사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한 지 6개월이 지났다. 2~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참여하여 부담이 적고, 봉사 시간으로 인정도 받아 학생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조리사님들은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배식을 받는 모습이나 잔반을 처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칭찬했다.

- ㄱ을 2문단에 활용하여, 새치기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가장 많음을 수치로 제시한다.
- ㄱ을 2문단에 활용하여, 배식받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례로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ㄷ을 3문단에 활용하여, 학생자치회에서 기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들어 뒷받침한다.
- ㄱ과 ㄴ을 2문단에 활용하여, 가지런하지 못한 식판 수거 상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한다.
- ㄴ과 ㄷ을 3문단에 활용하여,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를 처음 도입할 때 도우미 학생들이 겪을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한다.

10. <보기>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가]를 고쳐 쓴 것이다. 선생님이 했을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는 학생자치회에서 의결하여 2학기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생자치회에서는 행사를 의결하기 전에 먼저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과 운영 방식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자치회 게시판에 있는 건의함을 통해 제시된 양식에 맞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어떤 일을 의결할 때는 시행 이후 예상되는 성과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아. 그러니 급식 도우미의 날 시행으로 예상되는 성과로 내용을 고치면 좋겠구나.
- 어떤 일을 의결할 때는 먼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좋아. 그러니 의견을 수렴할 내용과 수렴 방법에 관해 설명하면서 참여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고치면 좋겠구나.
-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아. 그러니 행사의 취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문구로 대체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비유적 표현을 추가하면 좋겠구나.
- 전달 효과를 높으려면 필요한 정보를 분류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아. 그러니 학생들이 궁금해 할 행사의 시기, 급식 도우미 역할과 순서, 활동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면 좋겠구나.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아. 그러니 학생자치회에서 논의했던 다양한 방법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고치면 좋겠구나.

-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에서 주어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그리고 능동이 표현된 문장은 능동문, 피동이 표현된 문장은 피동문이라고 한다.

피동문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용언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피동사를 파생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구성된 ‘-아/어지다’, ‘-게 되다’를 어간에 결합하는 방법이나 일부 명사 뒤에 ‘-되다’를 붙이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그런데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날씨가 풀렸다.’라는 문장은 피동문의 서술어가 동작이나 행위가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누가) 날씨를 풀었다.’처럼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능동문으로 만들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기에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등에 사용한다. 한편, 피동의 문법 요소를 두 번 결합한 이중 피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색한 표현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대상보다 행위의 주체가 강조된다.
- ② 객관적인 느낌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 ④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피동 접미사 이외의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다. →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겼다.
 ㄴ.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누전으로 파악됩니다.
 ㄷ. 더위가 꺾였다. → (누가) 더위를 꺾었다.
 ㄹ. 이번 패배는 그의 실책으로 보여진다.

- ① ㄱ에서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었군.
- ② ㄴ에서는 명사 뒤에 '-되다'를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군.
- ③ ㄷ에서는 서술어가 자연적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힘들군.
- ④ ㄹ에서는 피동 접미사가 두 번 결합한 이중 피동이 쓰였군.
- ⑤ ㄱ과 ㄷ에서는 모두 피동 접미사로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군.

13.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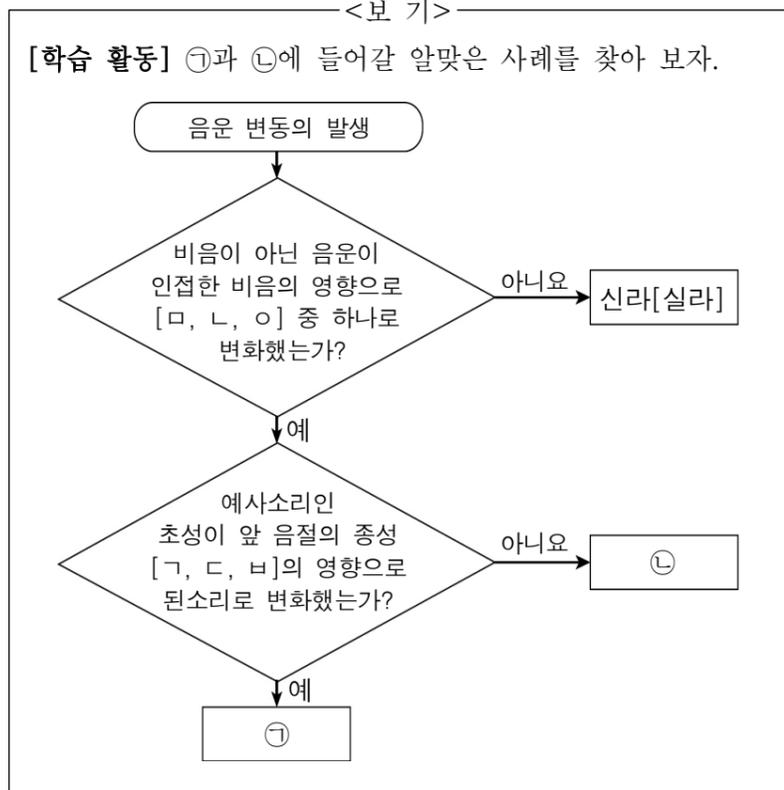
<보 기>

○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

- ▶ 동사는 선어말 어미 '-는-/-ㄴ-'의 결합으로, 형용사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냄.
- ▶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했을 때, 동사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냄.

- ① '감이 뺏다.'에서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뺏다'는 형용사이군.
- ② '책을 읽는다.'에서는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읽다'는 동사이군.
- ③ '친구와 논다.'에서는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논다'는 동사이군.
- ④ '집에 간 사람'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다'는 동사이군.
- ⑤ '우리가 이긴 시험'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기다'는 형용사이군.

14.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① 옷맵시[온맵씨] | 꽃말[꼰말] |
| ② 덮개[덥개] | 묵념[몽념] |
| ③ 부엌문[부엌문] | 앞날[암날] |
| ④ 광안리[광알리] | 권력가[퀵력가] |
| ⑤ 낫속말[낫송말] | 습득물[습똥물] |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두 친구가 이전의 약속을 떠올리며 일정을 잡는 상황)

학생 1: ㉠ 우리 저번에 놀자고 했던 거 있잖아. ㉡ 그거 내 일이지?

학생 2: 벌써 그렇게 됐네. ㉢ 어디서 보자고 했지?

학생 1: 학교 앞 정류장에서 보자고 했잖아. ㉣ 거기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문구점 가서 구경하기로 했잖아.

학생 2: 맞아, 그랬지. 가서 둘러보다가 살 거 있으면 각자 사도 되고..... 사고 싶은 거 있어?

학생 1: 아직은 ㉤ 무엇을 살지 모르겠어. ㉥ 그때 문구점 가서 봐야 알 것 같아. 아무튼,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날까?

학생 2: 12시 어때? 그러면 딱 점심 먹기 좋을 시간인데.

학생 1: 좋아. 그럼 ㉦ 그때 보자. 잘 자.

- ① ㉠은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한다.
- ② ㉡은 이전에 화자와 청자가 한 약속을 가리킨다.
- ③ ㉢은 ㉢에 대한 답인 학교 앞 정류장을 가리킨다.
- ④ ㉣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킨다.
- ⑤ ㉤은 약속 시간인 내일 12시를 의미하며, ㉦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흔히 예술이라고 하면 고상한 소재를 활용하여 아름다움이나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작품이나 행위를 떠올린다. 하지만 현대 예술에서는 고상함을 찾기 힘든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추함이나 불쾌감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아방가르드이다. 아방가르드는 주류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한 예술 용어로,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다.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근대 이전까지의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집단의 종교적 목적이나,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었다. 예술가 또한 종교나 궁정에 소속된 일개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인식되었다. 반면 근대의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나 만족감 등 고유한 미적 체험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예술가도 특별한 재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권위 있는 비평가들에게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기 위해, 예술가들은 예술적 전통과 관습이라는 당대의 미학적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대의 미학적 기준은 예술을 고유의 영역으로 독립시켰지만, 오히려 전통과 관습에 종속되게 한 채 새로움을 잃게 만들었다. 아방가르드는 이러한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예술가는 전통이나 관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새로운 미래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추하고 난해한 그림을 그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된 시를 낭송하는 등 의도적으로 당대의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였다. 또한 변기, 자전거 바퀴 등 일상적인 소재들을 창작에 활용하거나, 예술 활동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일이라는 통념을 깨기 위해 일상적 활동을 활용하여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무너뜨렸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에 적용하였으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술을 완성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를 파괴하였다.

예술계는 아방가르드가 제시한 예술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사조와 작품들이 주류 예술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 이러한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 아방가르드 운동은 쇠퇴하였다. 하지만 새로움과 저항이라는 가치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다는 아방가르드의 본질은 후대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

기술 발달과 아방가르드 예술의 영향으로 등장한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를 활용해 상영하는 방식에 기반한 미술의 한 갈래이다.

비디오 아트는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어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텔레비전의 보급은 대중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하지만

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상은 국가나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편성된 것이었다. 그 내용은 국가의 이념이나 상업적 가치, 흥미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대중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보급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이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던 대중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통하는 주체로 변화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 기존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창작자와 관람객의 상호 소통을 지향한다.

비디오 아트의 유형은 형태를 기준으로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로 나뉜다. 비디오 영상은 맥락 없는 이미지, 빈 화면 등의 실험적 이미지나 비판적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 자체를 의미한다. 설치 비디오는 영상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사물이나 장치와 결합하여 제작한 설치물이다. 설치 비디오에는 예술가가 텔레비전의 일방 소통적 특성을 비판하기 위해 기계 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변형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또 예술가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작품이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화하도록 만든 것도 있다.

이처럼 비디오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과, 작품이 이미 완결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우연한 사건의 개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관람객의 역할을 단순한 감상자에서 예술 작품 완성의 주체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중심 개념을 바라보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중심 개념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중심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중심 개념을 정의하고 그 등장 배경을 밝히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중심 개념의 하위 유형 구분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이전의 예술가는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인식되었다.
- ② 근대에는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 ③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는 예술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유래하였다.
- ④ 근대 이전의 예술은 예술가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 ⑤ 근대의 예술가들이 전통을 따랐던 이유는 작품의 아름다움을 비평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18.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방가르드가 주류 예술에 편입되어 더 이상 새로운 예술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② 아방가르드 운동의 쇠퇴로 인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 ③ 아방가르드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주류 예술을 보완한 사조들을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④ 아방가르드가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이 기존의 주류 예술계에서 인식하는 예술가의 모습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아방가르드가 제시하고 있는 예술의 방향성이 기존의 주류 예술계가 요구하는 미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19. [비디오 아트]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중문화로 인해 미술의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장르이다.
- ②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창작자와 관람객의 상호 소통을 지향하는 예술이다.
- ③ 대중문화의 확산을 일으킨 매체를 활용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 ④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를 활용하여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예술이다.
- ⑤ 메시지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국가와 대중의 기존 역할이 서로 전환되는 예술이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무대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백남준의 ㉠ <TV 첼로>는 1971년에 제작된, 첼로에 텔레비전 세 대를 결합한 형태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출력되는 영상은 첼리스트의 즉흥 연주나 행동에 반응하여 변형된다.
- 백남준의 ㉡ <닉슨>은 텔레비전 두 대에 변조 장치를 결합한 작품으로, 화면에 계속 등장하는 닉슨 대통령의 얼굴을 여러 형태로 일그러뜨려 희화화한 이미지를 관객에게 보여준다.

- ① 설치 비디오 유형에 해당하는 ㉠은, 새로운 매체를 예술 활동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텔레비전 기능의 자의적 조정을 보여주는 ㉠은, 기존 예술에서 보였던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경계를 파괴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비디오 영상 유형에 해당하는 ㉡는, 예술에 대한 기존 통념에 저항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작품에 언제든 우연한 사건이 개입되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는,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예술의 소재에 대한 기존 관점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실험적 이미지를 활용한 ㉠과 ㉡는, 일상적 활동을 예술에 적용하여 기존의 예술적 전통을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군.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은 해수이며 염분이 없는 물인 담수는 전체의 약 2.5%이다. 담수 중에서도 빙하, 지하수 등을 제외하면 인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의 총량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해수를 담수로 ㉠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로는 [다단 증발법]이 있다. 이는 물의 상변화*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가열된 해수를 수증기로 변화시켜 응축함으로써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다단 증발법을 적용한 해수 담수화 설비는 해수 가열기, 진공 유지 장치, 직렬로 연결된 여러 개의 증발기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하여 해수 가열기 내부로 이동한다. 해수 가열기는 고온의 증기로 해수의 온도를 해수의 끓는점인 110℃ 이상까지 높이는 역할을 하며, 가열된 해수는 앞서 통과한 증발기들의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한다. 이때 증발기들의 내부는 진공 유지 장치에 의해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의 끓는점은 대기압이 낮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증발기로 진입한 해수는 순간적으로 끓어올라 수증기로 바뀌게 된다. 생성된 수증기에 포함된 미량의 해수는 필터를 통과하며 제거되어 순수한 수증기가 되고 설비 밖으로 빠져나간다. 순수한 수증기는 증발기 상부의 냉각관과 만나서 응축되어 담수가 된다. 해수는 증발기들을 거칠수록 염분 농도는 높아지고 온도는 계속 낮아진다. 하지만 증발기들의 내부 압력 또한 설비 끝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증발기까지 담수가 계속 생성된다. 다단 증발법은 해수를 끓여 수증기만 얻는 방식이므로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담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다는 단점이 있다.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인 [역삼투법]은 다단 증발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기술로, 반투막을 이용하여 해수에서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같은 양의 담수와 해수 사이에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설치하면 염도가 낮은 담수에서 염도가 높은 해수 방향으로 물 분자가 옮겨 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며, 이때 담수에 작용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압력 펌프를 사용하여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하면 오히려 반대로 해수에 있는 물 분자가 반투막을 거쳐 담수 방향으로 이동하며 담수가 생성되는데, 이를 역삼투법이라고 한다. 역삼투법은 반투막의 오염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담수 생성 효율이 저하되므로 반투막과 맞닿는 해수의 수질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해수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삼투법은 다단 증발법에 비해 담수 생성 효율은 높고 에너지 소비량은 적지만,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얻기 위해 여전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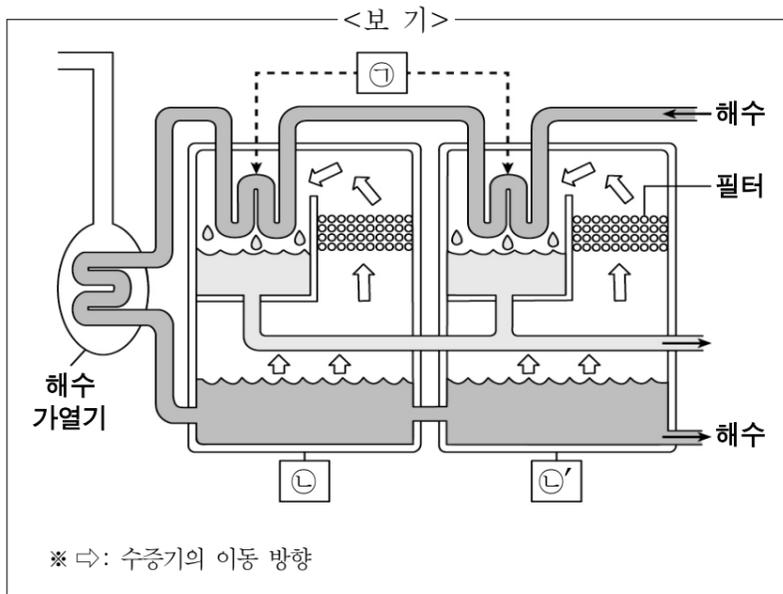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위한 해수 담수화 설비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연구 비용을 투자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상변화: 물질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로 변하는 현상

21.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다단 증발법의 장점은 무엇인가?
- ② 물 부족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 ③ 해수 담수화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가?
- ④ 해수 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⑤ 인간이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22. <보기>는 **다단 증발법**을 적용한 설비의 구조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수의 염분 농도는 ㉡보다 ㉢에서 더 높다.
- ② ㉡과 ㉢에서 생성된 담수는 설비 밖으로 빠져나온다.
- ③ 해수 가열기에서 온도가 끓는점보다 더 높아진 해수는 ㉡으로 이동한다.
- ④ ㉡과 ㉢에서 생성된 수증기는 필터에 의해 해수가 제거된 상태로 ㉠과 만나 응축된다.
- ⑤ 내부 압력이 같은 ㉡과 ㉢은 대기압보다 낮은 내부 압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수를 순간적으로 끓어오르게 한다.

23. **역삼투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단 증발법보다 담수 생성 효율이 높은 기술이다.
- ②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다단 증발법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다.
- ③ 다단 증발법보다 전처리 과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 ④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하여 담수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 ⑤ 염분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수에서 담수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24.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막 증류법'의 대표적인 방식은 고온의 해수와 저온의 담수 사이에 소수성*을 띤 다공성* 막을 설치하여 온도 차이에 의해 해수에서 증발된 수증기만 막을 통과하도록 해 담수를 얻는 것이다. 이 방식은 해수의 온도를 50~70℃로 높이는 것을 제외하면 압력 등 다른 요소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기에 1,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소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도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막이 물과 맞닿기 때문에 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수성: 물과 친화력이 적은 성질
* 다공성: 물질의 내부나 표면에 작은 구멍이 많이 있는 성질

- ① 압력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단 증발법과 유사하군.
- ② 역삼투법과 달리 물의 상변화를 이용하여 담수를 생성하고 있군.
- ③ 막의 오염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역삼투법과 유사하군.
- ④ 다단 증발법과 달리 해수의 온도를 끓는점 이상까지 높이지 않아도 되겠군.
- ⑤ 다단 증발법과 역삼투법에 비해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기 유리하겠군.

25.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새 학년을 맞아 동아리를 만들었다.
- ② 경기 규칙을 새롭게 만드는 일은 어렵다.
- ③ 시를 소설로 만드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 ④ 생일 선물로 친구에게 줄 케이크를 만드는 중이다.
- ⑤ 송진을 채취하기 위해 소나무에 칼로 흠집을 만들었다.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의 효력이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그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힘을 의미한다. 이때 타당성이란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고, ㉠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을 의미한다. 실효성이 없는 법은 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 법은 이러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을 갖춘 법이 미치는 범위는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의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만약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 경과되면 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법의 효력은 소멸한다.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구법

의 효력이 소멸된다. 법의 효력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며 ㉔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을 ㉔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이미 신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의 인적 효력은 한 사람에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 어떤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관계 없이 국적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은 경우 속인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상황에서 속인주의를 적용한다면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속지주의로 보완할 수 있다.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지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주한 외교 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㉔ 면책 특권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의 장소적 효력은 법이 어떤 공간에 적용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전체 영역인 영토, 영해, 영공에 걸쳐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중 일부 조항처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있다.

* 공포: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법의 효력은 국가 영역의 일부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 ② 법의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을 폐지할 수 없다.
- ③ 법의 효력은 부칙에 시행일을 반드시 규정해야 발생한다.
- ④ 주한 외교 사절은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더라도 타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7.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이 타당성만 있고 실효성이 없으면, 법의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 ② 법이 타당성만 있고 실효성이 없으면,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정당한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 ③ 법이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해당 법의 실현을 위한 강제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 ④ 법이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 ⑤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더라도, 법을 실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힘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28.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㉔~㉖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음주가 허용된 나라인 A국 국민 ○○씨가 음주가 금지된 B국에서 음주를 한 경우, ㉔에 따르면 ㉖의 법을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씨는 ㉕.

※ 단, ○○씨는 A국에서 B국으로 파견된 외교 사절은 아님.

- | | | | |
|---|------|----|-------------|
| | ㉔ | ㉕ | ㉖ |
| ① | 속지주의 | A국 | 처벌받을 것이다 |
| ② | 속지주의 | B국 | 처벌받을 것이다 |
| ③ | 속지주의 | B국 |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
| ④ | 속인주의 | A국 | 처벌받을 것이다 |
| ⑤ | 속인주의 | B국 |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기업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2016년 6월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1990년 1월에 제정된 관련법은 별도의 폐지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1일에 공포된 후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되었고, 효력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 ① 구법의 효력은 개정된 법의 시행일로부터 소멸했겠군.
- ②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2021년 7월에는 부과할 수 없겠군.
- ③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면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개정된 법이 공포된 시점에는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구법의 효력이 존재했겠군.
- ⑤ 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2016년 6월에 △△기업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었겠군.

30. ㉔~㉖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법규에 맞음.
- ② ㉕: 시간이 지나감.
- ③ ㉖: 어려운 점을 무릅쓰고 행함.
- ④ ㉔: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 ⑤ ㉖: 책임이나 책망을 면함.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왕언의 딸 왕시는 흥관 땅의 김유령을 만나 혼인을 했지만 나라의 늙은 신하에 의해 이별하게 되었다.

김유령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제 나이 스무 살 되었을 때 아내를 얻었는데, **나라의 노신 하가 궁녀로 들이니** 늘 서러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일도 잊은 채, 다만 아내의 소식이나 한번 듣고 싶어 그것만을 희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꿈에 선할아버님께서 이르시기를, ‘어찌 화산도사를 찾아가 보지 않는가? 그 도사가 못할 일이 없으니 네가 가보면 소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갈 때 돈 일만 관을 가져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돈을 장만하여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자 도사가 말했다.

“네 아내를 도로 밖으로 내어다 살고자 하느냐? 네 뜻을 자세히 말해라.”

김유령이 말했다.

“도로 내어다 살기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와 하루 만이라도 만나보아 서로 말이나 나누었으면 합니다.”

도사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네 뜻을 바로 말하지 않는구나. 하루만 보고 헤어지면 더욱 슬플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자 김유령이 다시 대답하였다.

“함께 살기야 어찌 바라지 않을까마는 불가능할 일이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함께 살게만 해 주신다면 제가 두엄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한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접때 이 땅에 오라고 하시던 사람인데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대답하였다.

[A] “네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착실한 사람이므로 월궁도사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그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대가 선간(仙間)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하고 인간 세상에서 일 년만 좋은 일을 하면 선간에서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려고 그대의 말을 들으려 했더니, 그대 무엇 때문에 짐승을 살게 하였단 말인가? 비록 하늘이 생겨나게 했으나 뱀이란 모질어 죄 없는 사람이며 불쌍한 짐승을 다 잡아먹느니라.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도적을 어찌서 살려주었느냐? 불쌍한 것을 구제하라 하였지 그런 것들을 살려내라 하더냐? 이 두 가지 일을 또 저질렀으니 삼 년간 조심하고 사 년 만에 오너라. 그때 보자.”

이러고는 간데없이 사라졌다. 김유령이 애닦고 민망해 집에 와서 문을 닫고는 들어앉아 조심하여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행실을 삼가고 있다가 사 년 만에 화산으로 들어갔다. 그제서야 도사는 김유령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B] “네 뜻이 보통이 아니로다. 돌이 굳지만 모래 될 때가 있고 쇠가 굳다 하나 녹을 때가 있으되 너는 돌이나 쇠보다도 더욱 굳은 사람이로다. 네게 이루어질 게 있으리라. 네 돈을 내라.”

김유령이 돈을 내어 바치니 그 도사가 동쪽으로 그중의 일백을 던지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오는 것이었다. 다시 서쪽으로 일백을 던지자 이윽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또 일백을 북쪽으로 던지니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나머지를 공중에다 던지자 이윽고 쇠머리 쓴 사람과 용의 몸을 지닌 사람과 귀밑머리가 단정한 사람 등이 오는 것이었다. 도사가 그중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궁궐에 가 왕시도 죽이고 오라.”

그러자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즉시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왕시도 죽이고 와서는 보고하였다.

“왕시를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른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유령이를 살려내라.”

그러자 살려내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령더러 말했다.

“네 집에 가서 들어보아라. 왕시가 죽었다며 장례를 치를 것이다. 담당 관리를 내어 석 달 만에 묻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석 달 안에 묻지 못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 빨리 가라.”

유령이 청원하였다.

“집이 두 달 걸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도사가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김유령이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윽고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일고 천둥치며 하늘과 땅이 자욱하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이었다. 살펴보니 **어느 곁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 들어보니 왕시가 죽었다며 장례 담당 관원을 내어 묻으려고 하였다.

김유령이 장례 담당 관원에게 소청하여 스무 날 내에 묻었다. 김유령이 생각하니, 도사 말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기쁘기는 하나 그 시신을 묻고 보니 슬픈 심사가 더욱 그지없었다. 다시 화산으로 즉시 가서 도사에게 왕시를 묻었다고 아뢰려고 하였다.

화산에 가니 마침 그 도사가 월궁도사를 만나러 간 지 열흘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었다. 매우 민망하여 음식을 먹지 않은 지 이레가 되어 기운과 정신이 아주 없었다. 도사를 모시고 다니는 아이더러 그 서러운 사정을 말하니, 그 아이도 도무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더욱 민망해 하고 있었다.

이윽고 천지가 자욱하고 천둥치고 바람불고 비내리고 어두워져 심사가 더욱 아득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더니 문득 날도 밝아지고 바람도 그치고 비도 개면서 도사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김유령이 나아가 뵈고, 왕시 묻은 일을 말하였다. 그러자 도사가 조그만 종이에 주사(朱砂)를 갈아서 부적을 써서 공중으로 치울리니 이윽고 도끼 가진 것과 팽이 가진 귀신이 모두 오는 것이었다. 또 동방에서 내치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왔다.

도사가 그 푸른 옷 입은 사람에게 말했다.

“저 귀신을 데리고 왕시의 무덤을 파내 화산 밑에다가 두고 와라.”

그러자 푸른 옷 입은 놈이 그 귀신을 데리고 갔다. 이윽고 북방의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옛집에 가서 무빙 등 왕시를 알던 종들을 다 잡아다가 유희국에다가 두어라.”

그러자 하직하고 가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령더러 말했다.
 “이제야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려가라. 다만 왕
 시의 종들을 다 잡아온 것은 행여 일이 생기면 네가 잘못될
 것이므로 죽여온 것이니 서러워 말라.”
 - 작자 미상, 「왕시전」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의 교차 서술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양 묘사로 성격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유령은 도사에게 처음부터 숨김없이 소원을 말하였다.
- ② 도사는 김유령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 ③ 김유령은 담당 관원에게 소청하여 왕시의 시신을 스무 날 안에 묻었다.
- ④ 김유령은 왕시의 시신을 묻고 난 이후 도사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화산으로 갔다.
- ⑤ 도사는 검은 옷 입은 사람에게 무병 등 왕시를 알던 종들을 유희국으로 데려가게 했다.

33.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상대를 회유하려는 의도가, [B]에는 상대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② [A]에는 상대의 행동을 질책하는 태도가, [B]에는 상대의 성품을 칭찬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A]에서는 다른 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B]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 ④ [A]와 [B]에는 모두 상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들어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왕시전」은 여인을 향한 남성의 애뜻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혼인한 남녀 주인공이 외부의 힘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재회하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 과정에서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거나 남자 주인공이 원래 신선계의 존재였다고 설정하는 등의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나타난다.

- ① ‘나라의 노신하가 궁녀로 들이니’라고 김유령이 말하는 장면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남녀 주인공이 헤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그대가 선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도사가 말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전생에 신선계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장면에서, 왕시에 대한 김유령의 애뜻한 사랑을 알 수 있겠군.
- ④ ‘어느 곁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장면에서, 김유령이 부리는 도술이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린 것임을 알 수 있겠군.
- ⑤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도사가 말하는 장면에서, 남녀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5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시냇가 막걸리에 쏘가리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미더운 강 물결이 보내는 것은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조그마한 배에 그물 실어 흐르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가 넘다
삿갓 비껴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 -

(나)

이보게 이웃 사람들과 산수구경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하세
아침에 나물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을 세면서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문득 불어 시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아뢰어라
아이를 시켜서 주가(酒家)에서 술을 사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모래밭 맑은 물에 잔 씻어 술을 부어
맑은 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곳인가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 꽃을 붙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에 앉아보니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벌여있네
노을빛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 엇그제 검은 들판에 봄빛이 넘치는구나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울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허튼 생각 아니하니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 이만하면 어떠한가

- 정극인, 「상춘곡」 -

* 미음완보(微吟緩步): 나직히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걸음
* 단표누항(簞瓢陋巷):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
* 백년행락(百年行樂): 한평생 즐겁게 지냄

(다)

이번 겨울은 소대한 추위를 모두 천안 삼거리 마른 능수버들 아래 맞았다. ㉣ 일이 있어 충청도 진천(鎭川)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한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공교로이 타관 길에서

이런 이름 있는 날의 추위를 떨어가며 절기라는 것의 신묘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였다. 며칠내 마치 봄날같이 땅이 슬슬 녹고 바람이 폭석하니 불다가도 저녁결에나 밤사이 날새가 갑자기 차지는가 하면 으레이 다음날은 대한이 으등등해서 왔다. 그동안만 해도 제법 봄비가 꽃나물 내음새를 피우며 내리고 땅이 녹녹하니 밭*이 들고 해서 ㉤ 이제는 분명히 봄인가고 했는데 간밤 또 갑자기 바람결이 차지고 눈발이 날리고 하더니 아침은 또 쫑쫑하니 날새가 매찬데 아니나 다를까 입춘이 온 것이었다. 나는 실상 해보다 달이 좋고 아침보다 저녁이 좋은 것같이 양력보다는 음력이 좋은데 생각하면 오고가는 절기며 들고 나는 밀물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신비롭게 얼키었는가.

절기가 뜰 적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와 바람과 꽃 들을 생각하는데 자연이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중략)

이런 고향에서는 이번 입춘에도 몇 번이나 ‘보리 연자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을 하며 입춘이 지나도 추위는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해도 입춘만 넘으면 양지바른 둔덕에는 머리칼풀의 속움이 트는 것이다. 그러기에 입춘만 들면 한겨울내 친했던 창애와 설매*와 밭구며 꿩, 노루, 토끼에 멧돼지며 매, 멧새, 출출이 들과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소년의 마음은 흐리었던 것이다. 높고 무섭고 쓸쓸하고 슬픈 겨울이나 그래도 가깝고 정답고 즐겁고 흥성흥성해서 좋은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버리는 것이라고 소년은 슬펐던 것이다.

그런 소년도 이제는 어느덧 가고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를 벗기가 가까워서 서글픈 마음이 없듯이 겨울이 가서 슬퍼하는 슬픔도 가버렸다. 입춘이 오기 전에 벌써 내 설매도 노루도 멧새도 다 가버린 것이다.

입춘이 드는 날 나는 공일무휴(空日無休)의 오피스에 지각을 하는 길에서 겨울이 가는 것을 섭섭히 여기지 못했으나 봄이 오는 것을 즐거이 여기지는 않았다. 봄의 그 현란한 낭만과 미(美) 앞에 내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할 것인가. 입춘이 와서 봄이 오면 나는 어떤지 까닭 모를 패부(敗負)*의 그 읍울(悵鬱)*을 느끼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차라리 ㉥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

- 백석, 「입춘」 -

* 밭: 미음. 봄철이나 가을철에 생나무의 껍질과 나무속 사이에 생기는 물기가 많고 진득진득한 물질
* 설매: 설매의 평복, 함경 방언
* 패부(敗負): 패배
* 읍울(悵鬱): 걱정스러워 마음이 답답함

35.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여 청자가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는 소재의 나열을 통해 글쓴이가 과거에 느꼈던 계절 변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리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름날 한가한 초당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
- ③ ㉢: 변화된 들판을 보며 감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 타지에서 소대를 맞이한 글쓴이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⑤ ㉣: 절기가 신묘하다고 생각하게 된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나 가사 중에는 자연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에서 화자는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의 친밀감을 표현한다. 또한 자연 속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삶이 임금의 은혜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 ① (가)에는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서 '소일하는 것'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② (나)에는 '청풍명월'을 '벗'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자연과의 친밀감이 드러나 있군.
- ③ (가)에는 봄에 '미친 흥이 절로' 난다는 것에서, (나)에는 '산수구경 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에서 자연을 즐기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④ (가)에는 추운 겨울에 '도롱이로 옷을 삼아' 입는 모습에서, (나)에는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는 모습에서 소박한 삶이 드러나 있군.
- ⑤ (가)에는 여름의 '미더운 강 물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나)에는 '공명'과 '부귀'도 자신을 꺼린다는 것에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군.

3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입춘」은 절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각들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작품이다. 글쓴이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절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절기의 변화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신을 객관화하여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 ① '슬슬', '으등등'과 같이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절기의 변화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② '봄비가 꽃나물 내음새를 피우며'를 통해 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절기가 뜰 적마다' 고향을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절기의 변화에 따라 고향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소년은 슬펐던 것이다'와 같이 자신을 객관화하여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슬퍼하는 슬픔도 가버렸다'를 통해 어린 시절의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39.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과거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에는 미래에 대한 글쓴이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아쉬움이, ㉡에는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거부감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대상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외로움이, ㉡에는 대상을 맞이하는 글쓴이의 즐거움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답답함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화자의 절망이, ㉡에는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글쓴이의 후회가 드러나 있다.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기 동남향으로 후미진 골짜기에 역새와 솔가지로 덮은 움막이 하나 보인다. 양동욱 내외가 들어있다.

동욱 내외는 이 지리산 공비 소탕이 완료되던 다음해 봄에 여기를 찾아들어 막을 매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피난살이를 부산에서 했다. 아무리 버둥거리봐도 살 수가 없었다. 살아갈 재간이 없었다.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겠으나 할 짓이, 할 일이 없었다.

약만 쓰면 살릴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지 못해 아이까지 죽였다.

영선고개 판잣집마저 헐리게 되자 별 걱정도 없이 그만 떠버렸다.

진주에서 몇 달 동안 살았다.

목수나 미장이 뒷일꾼으로도 다녀왔다. 한 달에도 며칠, 그나마도 작자가 달아 품삯은 고사하고라도 제 뚝에 돌아오지도 않았다.

그의 아내가 양은그릇을 받아 이고 장사로도 나서왔다. 주로 촌마을을 찾아다녔다. 본전도 더 깎지 않고는 팔리지 않았다.

할 일이 없었다. 살아갈 수가 없었다.

산청으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더 할 일이 없었다.

“여보, ㉠ 두더지가 땅 밖에 나오면 죽게 마련이라고. 우리 그만 깊숙히 산골로 들어가서 밭농사나 짓자요…….”

이래서 돈푼 될 것은 모조리 팔았다.

밀가루 두 포대와 감자씨 반 말을 사고 우거지 한 꾸러미를 바꿨다.

팽이, 호미, 톱, 낫 이런 연모와 함께 된장 몇 사발, 소금 두 뒷박 그밖에 석유 한 병, 사기 호롱 한 개를 꾸려서 산청을 뒤로 하고 산골로 접어들었다.

십 리도 넘게 들어갔다. 동욱의 걸음이 뜬다.

누구나 그래도 다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사는 세상에서 나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무인 산골로 쫓겨가다니—하니 동욱은 어떤 패배감 같은 설움이 치밀어 목이 메인다. 그럴수록 뒤따라오는 그의 아내가 측은하기도 하고 미담기도 했다.

㉡ “어쩔까, 산골은 어디 없이 매 한가지가 아니겠나?”

하고 동욱이 골짜기를 두리번거리자

“매 한가질 바야 더 들어가요. 길이 막히는 데까지 가 보지요!”

해는 벌써 한나절이 가까왔다. 어느 산구비로 희부영게 강물이 보였다. 먼발치로 강만 바라보고 무작정 걸었다. 벼랑을 끼고 얼마를 돌아나가자 강은 발밑으로 흐르고 있었다. 물이 발은 강이었다. 강을 건넜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오솔길을 따라 산기슭을 돌고 몇 등을 넘어 골짜구니로 들어섰다. 들어갈수록 질펀한 골짜기였다. 길 옆에 오지그릇 조각들이 보였다.

“동네였나부지?”

“그런가 봐요!”

하잘것 없는 이 오지그릇 조각들이 이 날 이 두 내외에게는 먼 조상의 무덤이나 찾은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반가웠다.

[중략 줄거리] 산골 생활에 적응해 나가던 부부는 자신들에게 집을 지어 준 박 노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 박 노인은,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지만 가엾은 처지가 된 윤 생원을 거두어 부부를 찾아와 함께 생활해 나간다.

한 이틀 쉬더니 윤 생원은 팽이를 들고 나선다. 놀자니 윤 전신이 근질거린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눈이 덮이기 전에 거름을 한 번 먹여야 한다고, 아직 차지도 않은 뒷간에다 물을 타서 보리밭에 퍼내기도 한다. 박 노인도 놀기 심심하다면서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곤 한다.

정월달도 그럭저럭 넘어가고 이월 초순 어느날 밤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그대로 담배를 피우면서 박 노인이

“벌써 진달래가 쫓데!”

그러자 동욱 아내가

“곧 나물이 돌겠네, 좋아라.”

“나물은 역시 야산이 빨라. 여기는 산이 깊어서…….”

동욱이

㉢ “그럼 감자씨도 낼까?”

하자 박 노인이

“씨는 넉넉한지?”

동욱 아내가

“잔 것만 가려서 두어 말 돼요!”

그러자 윤 생원이 불쑥

“돼지는 언제 살까요?”

하자, 박 노인은 비로소 생각이 난 듯

“세 전에 누가 구시(구유*) 두 개 파달라 카는데, 구시 두 개 파면 돼지새끼 한 자우 사질까?”

그러자 윤 생원이 또

“안되면 도끼자루하고 도리깨 살도 다 내지.”

“나도 산나물 나면 여 내다 보텔래.”

이러고 난 한 열흘 뒤에 동욱과 윤 생원은 새로 일꾼 받부터 골을 치기 시작한다. 삽에다 흙새끼를 걸어 동욱이가 당기고 윤 생원이 삽질을 했다. 서 마지기 턱이나 씨를 넣었다. 꼬박 사흘이 걸렸다. 감자갈이를 마치고 동욱과 윤 생원은 박 노인을 따라 산에서 구유감을 굴려 내렸다. 며칠째 꽃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산은 날로 물기가 어리기 시작한다.

닭이 품자리를 찾는다. 알은 딱 열 일곱 개밖에 낳지 않았다.

동욱 내외는 뜰 옆 양지쪽에서 닭을 품기면서 그의 아내가

“여보, 아무래도 방을 한 칸 더 달아야 해요!”

“뭘하게 방은 또…….”

“윤 생원 말요…….”

㉣ 동욱은 그의 아내의 입을 바라본다.

“명숙이 엄마를 데리고 올까고—.”

동욱은 비로소 말뜻을 알아차리고 씨익 웃으면서

“올까?”

“오다뿐이겠오. 인제 나이 서른 일곱인데, 아이를 달고 그게 어데 사는 게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윤 생원도 알고 보니 당신보다도 세 살 위인 마흔 둘입니다. ㉤ 마흔 둘이면 한창인데 이 산속에서 어떻게 홀애비로 늙겠오.”

* 구유: 마소의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 오영수, 「메아리」 —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욱의 아내는 장사를 나서 봤지만 손해를 보았다.
- ② 동욱은 도시에서 느낀 패배감을 아내의 탓으로 돌렸다.
- ③ 동욱 내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산골 생활을 시작했다.
- ④ 동욱은 박 노인과 함께 진주에서 뒷일꾼으로 일을 다녔다.
- ⑤ 동욱은 명숙이 엄마가 올 것을 확신하고 미리 방을 마련해 놓았다.

41.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 정착할 곳을 찾아가는 상황을 조금 더 견뎌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③ ㉢: 봄철 농사일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 ④ ㉣: 상대가 말하려 하는 내용에 대한 궁금함이 드러나 있다.
- ⑤ ㉣: 윤 생원의 처지를 걱정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메아리」에서는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인물들이 ‘산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며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산속은 정신적 위안과 안정을 주는 공간으로, 삶의 애환을 지닌 인물들이 과거에 겪은 상처를 딛고 살아가게 해준다. 아울러 산속은 혼란한 도시와 대비되어 인물들에게 물질적 안정을 주고 일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성원을 품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제시된다.

- ① ‘아무리 버둥거리봐도 살 수가 없었’던 피난살이와 ‘할 일이 없’어 살 수 없던 도시는 동욱 부부가 삶의 의욕을 잃었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동욱 내외가 ‘오지그릇 조각들’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고 반가’워하는 장면에서 산속이 정신적 위안과 물질적 안정을 주는 공간임을 알 수 있겠군.
- ③ 돼지를 기르고 싶다는 윤 생원의 말에 ‘구시 두 개 파’겠다고 ‘산나물 나면 여 내다 보’태겠다고 대답하는 장면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박 노인이 윤 생원과 함께 ‘산에서 구유감을 굴러 내’리는 장면에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윤 생원을 생각하며 ‘명숙이 엄마를 데리고’ 오겠다고 아내와 ‘씨익 웃으’며 기대하는 동욱의 모습에서 산속이 새로운 인물을 품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밀묵이 먹고 싶다.
 그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은
촌 잔칫날 팔모상에 올라
 새사돈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저문 봄날 해질 무렵에
 허전한 마음이
 마음을 달래는
 쓸쓸한 식욕이 꿈꾸는 음식.
 또한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자의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이 갈구하는 쓸쓸한 식성.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하고
 손과 주인이 겸상을 하고
 산나물을
 곁들여 놓고
 어수룩한 산기슭의 허술한 물방아처럼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먹는 음식.
 그리고 마디가 굵은 사투리로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삐 여기며
 그렇게 **이웃끼리**
 이 세상을 건지고
저승을 갈 때,
 보이소 아는 양반 양인기요
 보이소 옷마을 이생원 양인기요
 서로 불러 길을 가며 쉬며 **그 마지막 주막에서**
 걸걸한 막걸리 잔을 나눌 때
 절로 젓가락이 가는
 쓸쓸한 식욕.

- 박목월, 「적막한 식욕」 -

(나)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릿발이 목을 쭈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일 분만 단추를 눌러도 ㉠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가족에겐 ㉡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이 빠진 그릇에 찬밥 훑어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 가시를 핏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뿜던 그녀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의 찬밥이 되어
- 문정희, 「찬밥」 -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형태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청자를 겉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축각적 심상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향토적 분위기가 드러나는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44.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어려운 상황 속 화자의 이상을 실현해 주는 것이다.
 - ② ㉡은 시적 대상의 희생 없이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다.
 - ④ ㉡은 ㉠과 달리 시적 대상의 가치 있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 ⑤ ㉠은 과거의 기억 속에, ㉡은 현재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에서 음식은 일상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로 활용된다. (가)에는 모밀묵을 매개로 형상화된 삶의 모습을 떠올리며 인생의 허전함과 쓸쓸함을 달래고 싶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나)에는 화자가 아플 때 혼자 찬밥을 먹었던 경험에서 어머니의 희생적 삶을 깨닫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드러난다.

- ① (가)에서 모밀묵은 ‘촌 잔칫날’ ‘새사돈’을 대접하는 음식으로 소박한 속성을 지닌 것이지만 귀한 사람에게도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겠군.
- ② (가)에서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모밀묵을 함께 먹는 모습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허전함을 달래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이웃끼리’ ‘저승’에 갈 때 ‘마지막 주막에서’ 모밀묵을 먹는 것을 통해 현실에서 느낀 쓸쓸함을 화자가 극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군.
- ④ (나)에서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 가시를 훔’는 모습을 회상하며 어머니가 보여줬던 희생적 삶을 깨닫고 있군.
- ⑤ (나)에서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 모습을 통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